칼 럼

김 화 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정주영의 경영자 청지기론

고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청운동 고택이나 서산농장 기념관을 가보면 고인이 하루하루 생활했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기업을 일구고 그 경영자, 대주주였던 아산은 당연히 재산도 어머어마했을 것이다. 신문 지상에 한국 1위 부자로 오르내렸다. 그러나 검소와 소박 그 자체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 거처나 유품에서 쉽게 보인다. 아산은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 현대가 부자라는 말도 종종 했다.

"나의 생활은 중산층과 비슷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 직원들과 엇비슷하다는 뜻이다… 지금은 다이너스티를 타고 있는데, 평생 일도 꽤 많이 했고 나이도 있으니 탈 만하다 생각하면서도, 어떤 때는 너무 좋은 차를 타는 것이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소 면구스럽다."(정주영, 이 땅에 태어나서, 361)

세계 최고 부자들 중 한 사람인 워런 버핏이 나름 소박한 집에서 살고 집에 대문도 없어서 도둑이 들기도 했다는 일화와 오버랩된다. 버핏은 아직도 1958년에 3만 1500 달러를 주고 산 오마하의 방 5개 짜리 집에 산다. 버핏은 자기 재산에 자기 나이면 온갖 좋은 곳을 다니면서 재미있는 것들을 즐길 수 있지만 자신은 책상에 앉아서 회사 일을 할 때가 가장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올해 주주총회에도 88세의 나이로 나와 7시간 동안이나 주주들의 질문에 답할 정도로 일을 좋아한다.

아산은 '내 재산'이라는 생각은 첫 사업이었던 쌀가게를 할 때까지만 들었다고 한다. 일을 키우면서, 회사가 성장하면서 일이 좋아서 끝없이 일을 만들었지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363). 돈이 목적이었으면 어느 정도 재산이 되었을 때부터 편하게 사채업이나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기업은 규모가 작을 때는 개인의 것이지만 규모가 커지면 종업원 공동의 것이요,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나의 경우, 옛날 쌀가게를 했을 무렵까지는 그것이 나 개인의 재산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기업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 경영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기업을 수탁해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인 것이다."(371)

여기서 '국가와 사회' 대신에 '주주와 사회'를 넣으면 바로 오늘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기업관이 된다. 아산이 말한 청지기는 영어의 스튜어드(steward)에 해당된다. 이 개념은 1776년에 나왔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도 등장한다. 물론 애덤 스미스는 관리자가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나태해지는 문제, 즉 주의의무 위반을 지적했지만 거꾸로 보면 회사의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아는 문제, 즉, 충실의무 위반이 더 심각한 것이다.

누구나 보람있고 즐거운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 회사 경영자 자리에 있으면 무엇보다 하루하루 할 일이 생긴다. 특히 회사 일이 잘될 때는 그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을 정도다. 창업자 못지않게 일에 몰입하는 신세대 경영자들도 많다. 돈 많은 부자지만 할 일이 없는 것은 피폐한 인생이다. 특히 재벌 3, 4세들은 전문직이 아닌 다음에야 남의 회사에 갈 수도 없는 것이 운명이다.

그리고 오너 경영자는 상사가 없는 회사원이다. 보기에 따라 황제보다 더 좋은 지위다. 자신을 돕는 것이 직업이고 생계유지 수단인 사람들이 생긴다. 이들 중 재능있고 품성이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회사 안과 밖에서 모두가 자신을 정중히 대하고 회사 일에 속하는 범위에서 지출할 권한이 생기는데 사실 그 효용은 개인적인 경우와 중복되는 것이 많다. 또, 경영자 자리에서는 보수로 인한 안정된 현금흐름도 발생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회사 일에 부수적인 것이고 수단일 뿐이다. 일의 개인적인 보람과 의전과 소득은 경영권의 부차적인 측면이다. 경영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경영판단에 따라 회사의 현금흐름과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즉, 회사와 주주의 이익,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위해 사업상의 결정과 투자 결정을 내리고 그에 필요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정직하고 열심히, 그리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고 동시에 의무다.

아산은 자신을 꽤 부유한 노동자라고 평생 생각했다(312). 그리고 성실한 노동자였다고 자평한다(431). 아산의 경영자 청지기론과 기업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생각은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오히려 새삼스럽게 조명될 필요까지 있어 보인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교육 사전예방 생활화 해야

한국 소비자원 조사에 의하면 약 60% 가량의 안전사고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67.9%가 3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한다고 한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영유아 사고들은 주변에 대한 호기심과 충동이 높은 반면 운동기능과 판단이 미숙해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접근성이 높은 구역을 보다 자세하게 관찰하고 대처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

첫째 전선 및 콘센트를 주의해야 한다. 전선은 아이가 손으로 잡고 쉽게 잡아 다니는 일이 없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좋고, 콘센트 안전커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창문 근처에 의자나 침대가 있으면 아이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올라가지 못하게 예의주시하거나 그쪽에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셋째 아이들은 건전지를 이용하는 장난감, 리모컨 등을 열어 입에 넣는 경우가 많다. 스카치테이프를 한 번 더 붙여주거나 나사로 고정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이를 둔 가정이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미리 익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상 어린이들의 돌발행동에 대해 어린이 눈높이에서 주의 깊게 돌보는 한편 어린이들이 안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

백종희 / 무안소방서 지휘팀장

社 說

서비스 엉망인 담양군청 민원봉사실

우리는 공무원을 달리 이를 때 공복이라 칭한다.

공복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직업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공직사회의 대민서비스는 과거에 비해 몰라보게 나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거의 대부분의 공직사회가 환골탈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시대 변화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한 결과로 여겨진다. 따라서 많은 공직자들이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것도 이같은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의 경우 아직도 본분을 망각하고 친절과 상냥한 미소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극히 사무적이고 기계적이고 전투적인 태도로 일관해 민원인을 불쾌하게 하고 있음을 보니 이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30일 오전 9시 30분께 담양군청 민원봉사실.

외국나들이 한 지가 오래돼 여권을 신청해야 할 일이 생겨 방문했다. 담당자인듯한 여직원의 말투가 처음부터 대단히 귀에 거슬렸다. 원래 말투가 이러려니 하고 사진을 달라기에 내밀었더니 다짜고짜 그건 안 된다는 것이다. 조금 더 상냥하게 설명을 곁들여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일까. 뿐만이 아니다. 여권 기간과 관련해서도 툭툭 내던지는 식의 말투로 일관하는가 하면 모르는것을 물어보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어보인다. 아무리 봐도 대민서비스 일선 창구에서 일할 자질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

백보를 양보해서 원래 그 공무원의 평소 말투가 그런다하면 민원실에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된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하기 짝이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공직자는 교육을 통해 자세를 교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어는 그 사람 인격의 척도다. 민원실은 담양군의 얼굴이다.

물론 대부분의 민원실 근무자들은 모범적이고 친절이 몸에 밴 모범적인 공직자로 알고 있다.

꼴뚜기 한 마리가 어물전 망신을 시키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 담양군민이 담양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담양군이 해야 할일이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 · 가출인 신고	18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 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 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평 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 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